역대급 흥행 '나주읍성문화축제'…천년고도 매력 선사

금성관 일원서…4만5천여명 방문

가족형 콘텐츠·도심 캠핑 등 호응

삼색유산놀이 등 전통 공연 만족

6월14일까지 티니핑 가든 운영

최근 열린 '제6회 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의 '전통의상 한복쇼 흥미진진'에서 나주 관내 어린이집 아동들이 한복을 입고 참여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야심차게 선보인 제6회 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가 4만명이 훌쩍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구름 인파를 끌어모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5-17일까지 사흘간 금성관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 4만5천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천년의 봄, 나주목에서 흥(興)으로 피어납니다'를 메인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축제는 나주목 관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가족형 체험 콘텐츠를 완벽하게 결합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났다.

가장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킬러 콘텐츠는 단연 '캐치! 티니핑' 가든과 싱어롱쇼로, 아이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캐릭터 등장에 행사장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으며, 금성관 앞 잔디광장에 조성된 포토존에는 주말 내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해당 티니핑 가든은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오는 6월14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전통의 멋을 살린 공간들도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사매기길 일원에 꾸려진 '나주읍성 성내장 시전'은 호패 만들기·전통놀이 체험·먹거리 장터 등을 통해 옛 장터의 푸근한 정취를 선사했다.

서성문(영금문) 잔디공원에 마련된 '도심 캠핑' 공간은 공연 관람과 피크닉을 동시에 즐기는 이색 휴식처로 각광받았다.

천년 고도의 품격을 증명하는 굵직한 역사·전통 프로그램인 '전통의상 한복쇼 흥미진진'은 관내 어린이집 아동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벅찬 감동을 안겼으며, 대한민국 대표 전통연희인 '안성남사당 풍물놀이'는 축제장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 올려 축제의 깊이를 더했다.

특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수문장, 나주성(城)에 서다'는 웅장한 취타대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수문장 교대식·오위진법 사열·원앙진 재현 등을 선보이며 조선시대 군사문화를 생생하게 복원해 냈다.

이밖에 나주 삼색 유산놀이, 나주읍성 유람기 등 다채로운 전통문화 공연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시켰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올해 축제는 대중적인 가족 친화형 콘텐츠와 나주만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원이 완벽한 조화를 이뤄 역대급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천년 고도 나주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누구나 찾아와 낭만과 흥을 즐기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영암 '청년인생 내컷마을' 외지 청년 발길 이끈다

집수리·쿠킹클래스·마을탐방 등

전국 청년 참여…지역 정착 유도

영암군이 외지 청년들의 발길을 이끌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전남형 청년마을' 맞춤형 로컬 프로그램이 전국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타 지역 청년들이 영암의 일상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지역과의 끈끈한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돕는 특화 프로젝트 '청년인생 내컷마을'을 지난 2023년 공모사업 선정 후부터 추진중이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1차 연도 사업에서는 리빙랩과 마을호텔 체험·지역 탐방 등이 운영돼 약 90명의 청년이 영암에서의 주말살이와 한달살이를 만끽했다.

이어 올해 진행 중인 2차 연도 사업은 한층 고도화된 체류형·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알차게 꾸려졌다.

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된 집수리 클래스에는 서울·광주·울산·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 25명이 참여해 데크·피크닉 테이블·울타리 등을 직접 제작하며 실용적인 목공 기술을 익혔다. 〈사진〉

또한 지역 특산물을 십분 활용한 쿠킹클래스도 인기몰이 중이다. 지난달 영암 고구마를 활용한 디저트 만들기 수업이 큰 호응 속에 열렸으며, 향후 무화과·대봉감 등을 활용한 다채로운 요리 수업이 대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참가자들이 지역 관광지와 맛집 등을 탐방하고 사진·숏폼 영상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영암의 매력을 알리는 서포터즈 활동도 활발히 전개되며 든든한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김선미 인구청년과장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의미 있는 새로운 경험을 쌓고 자연스럽게 영암과 연결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로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무안군, 보건지소 개편 '의료 공백' 해소

통합형·건강증진형 분리 운영

진료·처방 수행 1차 공백 메워

무안군은 19일 "보건복지부 '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 시범사업'에 발맞춰 내년 12월31일까지 관내 보건지소를 통합형과 건강증진형으로 분리해 맞춤형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어촌 공중보건의사 급감에 따른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의료 인력 축소에 대응해 삼향·몽탄보건지소를 '통합형'으로 전환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기존 보건진료소처럼 직접 의과 진료와 처방을 수행해 1차 의료 공백을 메운다.

또한 일로·청계·현경·망운·해제·운남 등 6개 지역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탈바꿈한다.

단순 진료보다는 질병 예방과 관리에 방점을 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송미영 군보건소장은 "공중보건의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주민의 필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무안=김상호 기자

목포시, 수산식품 수출단지 입주기업 모집

오는 29일까지 대양산단 36개실

목포시가 지역 수산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끌 핵심 수출 거점 조성과 우수 기업 유치에 나선다.

19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날 대양산단 내 수산식품 수출단지에서 입주기업 모집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입주기업 공개모집과 관련해, 단지의 주요 기능과 지원 계획을 사전 안내하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모집 공고의 세부 내용과 실제 임대 시설 공간을 현장에서 꼼꼼하게 공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총사업비 1천179억원이 투입된 수산식품 수출단지는 부지 2만8천133㎡, 연면적 4만6천612㎡ 규모의 첨단 복합 산업시설로 수산식품 가공을 비롯해 연구개발(R&D)·물류·수출 지원 기능을 한데 모은 수출 거점형 클러스터로 구축되고 있다.

이번 모집 대상은 단지 내 임대형 가공공장 36개실로, 수산식품 제조·가공 분야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업에는 기본 사무 공간과 공용 회의실이 제공된다.

기업 수요에 따라 냉장·냉동창고와 추가 공간도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영매 수산산업과장은 "가공공장과 공동 활용 시설을 통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며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완도군, 귀어·귀촌인 정착 돕는 '희망 학교' 운영

내달 5일까지 신규 교육생 모집

양식장 견학·선배 멘토링 등 지원

완도군은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고 고령화된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맞춤형 예비 귀어인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

19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어촌 생활을 희망하는 예비 귀어인들을 위한 '2026 귀어·귀촌 희망 학교' 신규 교육생을 모집한다. 〈사진〉

이번 교육은 귀어·귀촌에 관심은 있지만 정보 부족과 두려움으로 망설이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참가자들이 단순한 주거지 이동을 넘어 새로운 직업과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만큼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적극 지원해 실질적인 이주 및 정착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모집 대상은 관외 예비 귀어인을 비롯해 지역 내 거주 중인 전입 5년 이내 귀어인과 재촌 비어업인이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다음 달 15일부터 19일까지 기초 어업 기술, 해상 안전 교육, 양식장 현장 견학 등 이론·실습이 결합된 입체적인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특히 이미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선배 귀어인들을 강사로 초청해 생생한 현장 경험과 정착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고, 교육생 간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도 밀도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완도=윤보현 기자

함평자활센터-함평소방, 소방시설 확충

재난 취약계층 '화재 안전 울타리' 조성

함평지역자활센터가 지역 내 재난 취약계층의 화재 안전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함평소방서와 손을 맞잡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19일 함평지역자활센터에 따르면 함평소방 예방안전과와 관내 장애인·저소득층 등 6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및 안전 물품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신체적·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현저히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보호 대책이다.

양 기관은 올 연말까지 합동 현장 방문을 통해 가구별 낡은 소화기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가스 화재 예방 장치를 보급한다. 〈사진〉

또한 함평소방은 전문 기술 자문과 설치 인력을 적극 지원하며, 자활센터 인력이 동행해 실효성 있는 주택 화재 예방 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오철수 센터장은 "화재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소방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이웃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부는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함평=기영규 기자

강진군, 오늘까지 인구감소 대응 의견 수렴

강진군은 19일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7-2031)' 수립의 첫걸음으로 20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인구 활력 증진과 지역 발전의 기본방향을 마련하는 핵심 법정 계획이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강진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전입 가구 맞춤형 지원 시책 선호도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폭넓게 조사해,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정착 유도 전략을 촘촘히 마련할 방침이다.

설문조사는 누구나 군청 누리집이나 홍보 포스터 QR코드(사진)를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정정희 인구정책과장은 "실질적인 맞춤형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